

지나의 한국 사는 이야기

'나는야 1.5세 아줌마'

남다른 비교



세 살 위인 친오빠가 나보다 먼저 미국 유학길을 떠나 는 바람에 오빠 없이 살았던 적이 있었다. 그때 나는 중 학교 2학년이었고 나를 예민한 시기였는데 엄마는 큰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쉴 새 없이 나와 오빠를 비교하 며 해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싶었 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기분이 나빴고 알 수 없는 열등 감이 나 자신을 잡아먹기 시작했다.

오빠는 분명 특별한 아이였다.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한 가지만 잘했다면 더 좋았을 것을, 잘하는 게 너 무 많네요."라며 아쉬워하실 정도로 특출난 분야가 많 았다. 방학 때 한두 달 강습을 보내 놓으면 수영이고 미 술이고 스케이트고 몇 년 배운 애들보다 월등히 잘해서 주위를 깜짝 놀라게 했다. 타고난 운동신경에 질세라 음 악에도 남다른 재주가 있어서 악기도 잘 다루고 노래도 잘 불렀다. 남의 잔치, 손님 방문, 아버지 행사에서도 노래를 시키면 오빠는 아무렇지 않게 노래를 잘도 불렀다. 어쩌다가 덩달아 나까지 노래를 시키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나는 진땀을 빼며 온몸을 배배 꼬며 괴로워했 던 기억이 있다. 오빠에 비하면 나는 특출난 게 없는 평 범한 아이이긴 했다.

하지만 또 오빠는 유난스럽기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인물로 다섯 살 무렵 엄마 손을 뿌리치고 혼자 찾길로 뛰어들어 차에 치인 적이 있었고, 국민학교 2학년 때 (80년대로 반공교육이 투철할 당시) 학교에서 "김일성 수령동지 만세" 를 외치며 반 아이들을 선동한다며 부모님이 학교로 호출되었고, 6학년 때 가축을 경험했었고, 놀다가 친구가 다치거나 본인이 다치거나 하는 사고 도 순하게 일어나는 등 꽤나 사건 사고가 많아 자주 부모님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곤 했었다.

그래서 오빠가 없으면 집이 조용했고 오빠가 집에 돌아 올 무렵이면 나는 슬슬 불안해졌다. 압력밥솥이 짜깁 짜깁 소리를 내는 해질 무렵이 되면 나는 이상하게 배

가 살살 아파오곤 했었다. 그 당시 그 기분이 정확히 무엇인지 몰랐는데 성인이 된 이후에도 비슷한 느낌이 남아있었고 그것이 나의 불안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 았다. 오빠가 집에 돌아오면 매일같이 엄마의 심기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눈치를 살펴야 했고 그 불안함이 내 안에 남아있었던 것이다. 그에 비하면 나는 얼마나 조용하고 무난한 자식이었는가..... 기껏 해봤자 화가 났을 때 입술이 튀어나오는 것 말고는 사고를 쳐본 기억 도 없는 것 같다.

그런데 이 특출나고 유난스럽던 오빠가 집을 비우자 엄마는 끊임없이 나를 들들 볶기 시작했다. 까딱하면 엄마 입에서 "니 오빠는 어찌고 저찌고" 가 튀어나왔는데 나중에는 하다 하다 "오빠는 잘 먹는걸 너는 왜 안 먹냐, 오빠는 하얀데 너는 왜 아니냐" 까지 들먹였다. 그럴 때면 나는 속으로 '아니 있을 때나 잘해주시 왜 이제 와서 저러나' 싶을 정도로 오빠 타령이 끔찍이도 듣기 싫었다. 맨날 사고도 많이 치던 오빠였는데..... 왜 이리 좋은 것 만 기억하는 걸까.....

그런데 나도 엄마가 되었다. 게다가 애가 넷, 나름 다자 녀를 키워보니 이게 정말 특별한 의도나 악의 없이 순식 간에 아이들을 비교하게 된다. 비교가 얼마나 나쁜 줄도 알고 그래서 비교를 하고 싶지도 않고 싶지도 않지만 저 절로 작동되는 자동 버튼 같다고나 할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나 자신을 남 과 비교하고, 남편을 사랑하면서도 옆집 남편과 비교하 고 내 자식이 더 귀하지만 친구 자식과 비교하는 그냥 습 관처럼 일어나는 행위와 비슷하다. 특히 엄마가 자식을 비교하는 것은 누가 더 잘나고 누가 더 좋아서라기보다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지니는 아주 못된 습성이 튀어나 오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다. 제대로 설명하고 다 르게 표현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비교" 라는 가장 손쉬운 방법을 선택했을지도 모른다. 그래야 가장 쉽고, 가장 강하니까.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비교는 얻는 것

보다 잃는 게 많다는 것이다.

나도 큰아들이 집을 떠난 후 부쩍 남은 아이들에게 큰형 아는 이랬는데 저랬는데 하며 아무 의미 없는 비교 아닌 비교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아직 아이들은 별 말이 없지 만 곧 그 옛날에 나처럼 이런 소리를 지긋지긋해 하겠구나 짐작만 하고 있다. 이 얼마나 부당하고 야속한 일인가? 이 세상을 떠난 누군가와 비교당하는 것만큼 기가 찬 일이 또 있을까? 아무리 노력한들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을 어찌 이 길 수 있겠는가? 사실 나도 입 병긋하는 순간 후회한다.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자꾸 그 옛날 나의 엄마처럼 나의 애절한 그리움을 묘한 방법으로 풀어보려는 속셈이 없지 아니하다.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상하게도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다.

우리 모두는 비교가 얼마나 쓸데없는 짓인지 알면서도 언제나 끊임없이 서로를 비교하며 살아간다. 나 역시 앞으로 이 버릇을 고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솔직히 자신이 없다. 내가 그토록 싫어했던 것이면서도 왜 비슷한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지 답답하기까지 하다. 눈에 쌍심지를 켜고 텀버드는 사춘기 자녀에게 '너도 너 같은 애 낳아서 키워 봐라' 라고 뻔한 멘트를 뻔한 순간에 외치는 것처럼, 나도 나의 엄마도 또 그렇게 반복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인류의 역사가 반복되듯이 말이다. 그래도 나는 기회가 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꼭 이야기해주고 싶다. 내가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엄마의 무식한 남다른 비교는 그저 애타는 그리움이고 몸에 밴 버릇 같은 것이니 조금은 눈 감아주었으면..... 너는 그 누구와 비교해도 이 세상 유일한 유일무이한 존재이니 힘을 내라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고 꼭..... 이야기해주고 싶다.

*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와 26년 동안 생활했던 필자는 2017년 8월부터 다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는야 1.5세 아줌마'는 재미교포 1.5세 아줌마 인 필자가 한국 생활을 하면서 전하는 생생하고 유쾌한 한국 이야기이다. (편집자 주)



※ 새집 분양! 여러지역 새집 매매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부터 투어, 입주하실때까지 자세히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 첫 방문시 저와 함께 가셔야 더욱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으며, 매입 거래시 어떠한 수수료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플러톤 단독 주택
방4 화3
6500sqft 대지
\$575천

플러톤 단독 주택
방 3개 화1
6800sqft 대지
\$55만

플러톤 타운홈
최고의 학군
초중고 도보거리
방2 덴1 화2
\$49만

라하브라 타운홈
방 2 화 2 1100sqft
전체 마루
뒷마당 있는 타운홈
\$575천

부에나팍 타운홈
방1 화1 마당있는 타운홈
전체 마루, 한인마켓 도보 거리
낮은 HOA, Turn Key
\$45만

부에나팍 2016 타운홈
방2 덴1 화2.5 1721sqft
Turn Key, 렌트비 잘 나오음
투자용 아주좋은 매물
\$709천



부에나팍 타운홈 739천



리버사이드 2유닛 49만불

방 3개 화 2.5개 1721 sqft 2015년
보시면 바로 사랑에 빠지실 매물입니다. 넓은 거실,
넉넉한 수납공간의 부엌, 부에나 팍 유명 소스를 건너편

렌트 수익 좋은 방2 화1, 방1 화1

사우스게이트 4유닛
자세한 내용은 문의
\$100만

성업 중인 햄버거가게
포텐셜 아주 넘치는
한달 순수익 12천
\$10만

에버인 타운홈 렌트
깨끗한 새집, 새로 리모델링 한집
방 2개 화 3개
*학군 좋은 곳
\$2,800

주택/ 상가/ 사업체/ 투자매물 전문
차별화된 전문가의 서비스가 꼭 필요합니다

정상 자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마켓 최고의
가격으로 7일 안에 팔아 드립니다.

꿈과 사랑이 싹트는 내 집 마련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에이전트 아이비를 찾아주세요



명예부사장
Honorary Vice President
전 미국대학입시 코디네이터
칼리지 카운셀러
DRE Lic. 02086695

Ivy Chang Realtor
LeahchangRealty@gmail.com

714.904.1202

Buena Park: 6561 Beach blvd
Irvine: 8 Corporate Park #220